

돼지가격의 주기변동과 양돈농가의 대처방안

최 규 섭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I.

돼지가격의 급격한 등락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소득불안정과 이에 따른 경영상의 불안요인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양돈경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영지표를 이해하여 향후의 경기를 전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에 들어서는 총사육두수 및 모돈수의 동향 파악만으로는 가격전망을 하기가 어려워 지고 있다. 즉 총사육두수의 변화가 없더라도 가격등락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양돈경기 상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몇가지 경영지표를 살펴보고 가격전망을 위한 잠정적인 기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가격안정화를 위한 잠정적인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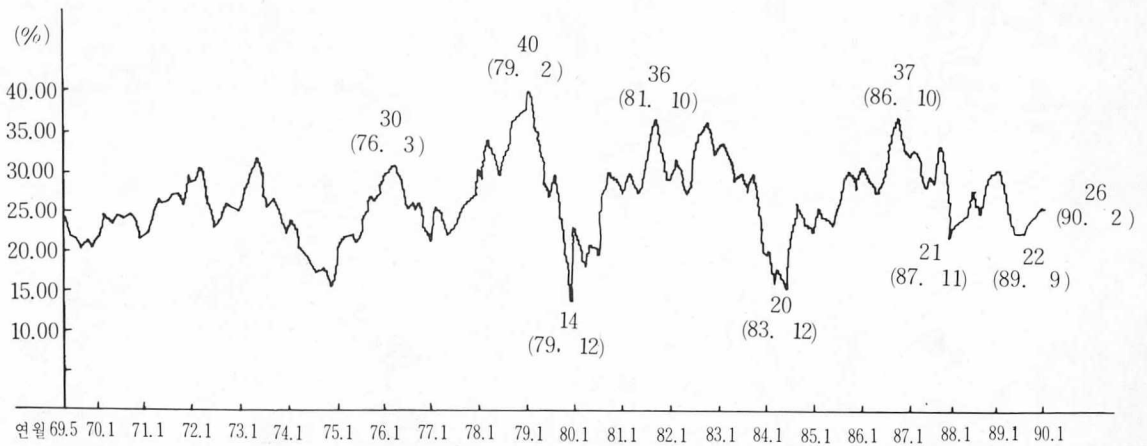
II.

〈그림1〉은 성돈가격대비 자돈가격비(자돈가격을 성돈가격으로 나누어 준 백분율)를 보여주

고 있다. 이 지표는 성돈가격의 변동폭보다는 자돈가격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싸이클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육농가의 자돈수요 의지가 성돈가격 크기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표는 돼지가격의 주기변동 패턴을 보여주는 순수한 가격순환 싸이클과 매우 유사한 양태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양돈경기 자체를 보여주는 싸이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가격순환 싸이클은 가격변동이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추세변동·순환변동·계절변동·불규칙변동중 추세·계절·불규칙변동을 제거시키고 남은 순수한 순환변동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독립적으로 추출하는데는 복잡한 계산이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양돈농가 수준에서 돼지가격의 주기변동 상황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림1〉과 같이 자돈가격을 성돈가격으로 나누어 준 백분율을 순환싸이클로 보면 된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대체로 31개월을 1주기(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로 변동하여 왔으나 80년대에는 대체로 47~48개월을 1주기로 하여 변동하고 있다(물론, 그 사이에 소



〈그림1〉 성돈가격 대비 자돈가격비



순환은 있다).

위에서 보여준 성돈가격대비 자돈가격의 백분율을 양돈농가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즉, 이 지표가 25수준을 넘을 때는 양돈경기가 과열상을 보이며, 그 이하일 때는 침체국면을 보인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새로운 새끼돼지의 사육을 위한 의사결정 경영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하강국면에서 25수준을 훨씬 넘을 때 자돈을 추가입식하는 것은 이 자돈이 성돈으로 성장하여

시장에 출하될 때 양돈수익성이 악화하여 경영 압박을 맞을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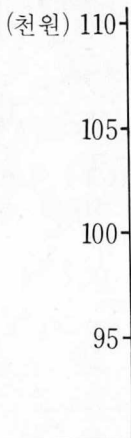
그러나 상승국면일 때는 위험율이 다소 감소될 수도 있다. 특히 이 지표가 즉, 자돈가격이 성돈가격의 35%를 상회할 때는 차기의 가격하락 국면에 출하하게 되므로 대단히 수익성이 악화되므로 새로운 자돈의 사육을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자돈가격이 성돈가격의 20%를 하회할 때 자돈을 입식하는 것은 성돈이 되어 출하될 때 높은 가격이 예상되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III.

앞에서 가격변동에는 계절변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계절적 요인에 의해 돼지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2〉에 나타나 있다. 일년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러한 계절지수는 가격변동을 전망하는데 하나의 지표로 이용될 수도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월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연초와 구정의 계절적 수요 때문이다. 3월은 영농자금조달 및 학자금조달을



| 월 | 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계절 지수 | 성돈가격 | 105.8 | 104.2 | 95.2 | 99.8 | 105.3 | 103.1 | 99.3 | 95.9 | 100.8 | 97.2 | 96.0 | 97.5 |
| | 총사육두수 | 99.0 | 98.3 | 97.7 | 98.3 | 99.0 | 99.7 | 101.0 | 102.2 | 103.2 | 100.4 | 101.0 | 100.0 |

〈그림2〉 성돈가격 및 총 사육두수 계절지수

〈표1〉 인구 100명당 월령별 돼지 사육두수 (단위: 두)

| 연월 | 월령 | 총두수 | 2개월미만 | 2~4개월 | 4~6개월 |
|--------|----|-------|-------|-------|-------|
| '88. 3 | 3 | 10.21 | 3.40 | 3.29 | 1.85 |
| | 6 | 10.98 | 3.58 | 3.88 | 1.70 |
| | 9 | 11.87 | 3.84 | 4.11 | 2.11 |
| 12 | 3 | 11.50 | 3.17 | 4.21 | 2.22 |
| | 6 | 11.66 | 3.77 | 3.67 | 2.23 |
| | 9 | 12.67 | 4.11 | 4.44 | 2.10 |
| '89. 3 | 3 | 12.87 | 4.06 | 4.51 | 2.48 |
| | 6 | 11.27 | 2.93 | 4.26 | 2.45 |
| | 9 | | | | |
| 12 | 3 | | | | |
| | 6 | | | | |
| | 9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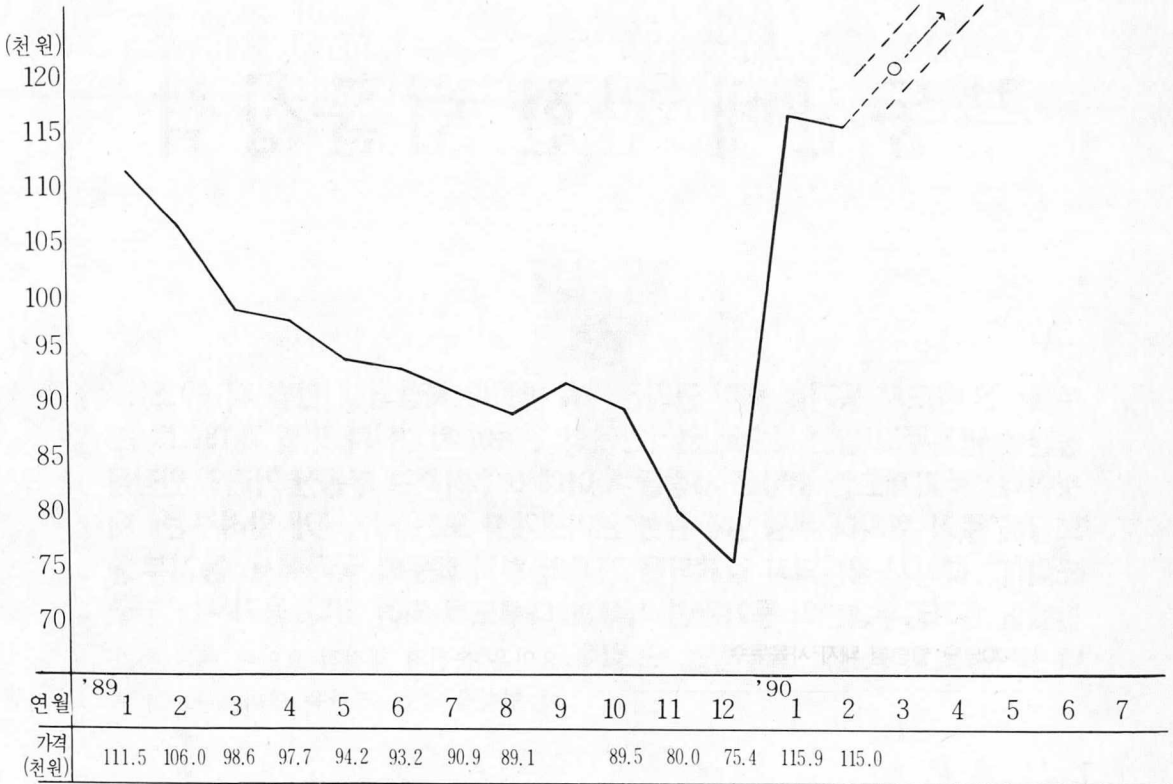
위한 대량 출하로 가격의 일시적 하락요인이 있으며, 5~6월은 3월의 과다출하로 인한 상대적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 발생한다. 7~8월은 하절기의 비수기로 인한 상대적 가격하락요인이 작용하며, 9월은 추석의 일시적 수요증대로 가격인상요인이 나타난다. 10~12월은 영농자금상환을 위한 대량출하로 가격의 하락요인이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에서 언급한 월별등락

요인은 순전히 계절적 요인에 의해 총가격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만을 의미하며, 다른 요인에 의한 등락현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돼지가격 동향을 파악할 때 가격전망을 위한 지표로는, 3~4개월 후의 가격동향은 2~4개월령의 인구 100인당 마리수 및 구성비를, 5개월 후의 동향은 2개월령 미만 및 모돈수의 마리수 및 구성비가 이용될 수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2~4개월령의 인구 100인당 마리수가 1% 증가하면 3개월 후의 가격은 약 0.9% 하락하며, 1% 감소하면 그 가격은 약 0.9%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사회적 요인에 의해 5~6%가 매년 증가되리라고 본다.

〈표1〉은 인구 100명당 월령별 돼지의 사육두수의 변동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1989년 12월은 9월에 비해 인구 100명당 총사육두수가 줄고 있는데, 특히 2개월 미만의 마리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금년 4~5월에는 가격등귀현상이 더욱 심화되리라고 전망된다. 그리고 2~4개월령도 줄고 있어 금년 1~2월의 돼지가격 상승 현



〈그림 3〉 성돈 가격 추이

상을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1~2월의 계절지수가 높음에도 기인한다고 본다. 그리고 모돈수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금년도의 돼지가격은 상당한 상승세가 지속되리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전망은 순전히 국내 여건에 의한 전망이며, 해외요인이 크게 불리하게 나타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즉, 돼지

고기 통조림의 수입증가에 따라 국내 돼지고기 가공업체의 가동율이 현재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가공용 돈육수요가 크게 줄어 든다면 돈육시장은 교란이 예견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양돈농가의 소득보장 측면에서 수입관세를 대폭 높여 국내 가공업체를 보호해야 하며, 아울러 돈육의 수출촉진방안을 강력히 추진하여 양돈농가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